

목포시 공약사업 추진 점검...임기내 이행 속도 낸다

150개중 53개 마무리·97개 순조...교부세 줄어 재정확보 비상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등 현안 해결 행정력 집중

목포시가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과 '친환경 선박 집적화 단지' 구축 등 현안 사업이 민선 8기 임기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목포시는 지난 20일 박홍률 목포시장 주재로 '2024년 상반기 공약 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보고회에서는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주요 공약사업의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이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찾았다.

목포시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사업 150개 가운데

중·장기적 공약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전남도·중앙부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목포시는 시 누리집에 공약 이행 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민선 8기 공약 사업 조기 이행을 위해 이날 논의한 검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박 시장은 공약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다수의 사업이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애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별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는 등 사업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시에는 이들 사업이 민선 8기 임기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박홍률 목포시장이 지난 20일 올해 상반기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근로사업' 첫 시행

황산농협 일당제로 근로자 파견 베트남 22명 입국...9월까지 운영

해남군이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실시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개별 농가와 근로계약 후 농가 작업장에서만 근무하는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달리 농협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일당제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처음 시행되며, 해남에서는 황산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황산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9월까지 5개월간 운영될 계획이며,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3개월 연장할 수도 있다. 미입국한 6명의 근로자는 이달 말까지 입국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해남군과 황산농협은 지난 20일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방식으로 입국한 베트남 계절근로자 22명의 입국 행정절차를 마치고, 환영식과 함께 근로자 교육을 가졌다.

해남군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중·소농의 단기간, 비정기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



해남군과 황산농협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해남을 찾은 베트남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을 환영하고 있다.

다양한 농가 수요를 충족시키고, 농번기철 상승하는 지역내 인건비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남군에는 현재 결혼이민자 가족과 친척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계절근로자 225명 등 29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산농협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첫 시행이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음으로 농촌인력 기반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군, 전남 첫 정신건강 무인 검진기 설치

우울증·스트레스 등 자가검진

진도군은 보건소 1층에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정신건강 검진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를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내 마음의 온도 체크' 정신건강 검진기는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장애 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자가 검진하고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대상자별로 검진할 수 있다.

단말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예약을 하고,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 안내, 질환별 정보, 인근 정신의료기관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민 정신건강 관리 접근성을 높이고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진도군보건소 1층에 단말기를 설치했다. 지역민 누구나 이 단말기를 통해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단말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는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 단말기 사용을 돕는다.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지만,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람은 12.1%에 불과하고 특히 정신장애 진단자의 지난 1년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비율은 4.5%에 그쳤다.



진도군 보건소 1층에 설치된 '내 마음의 온도 체크' 정신건강 검진 무인 단말기에서 지역민들이 스스로 검진을 하고 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키오스크를 통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신안군 갯벌낙지 맨손잡이 '최고의 장인' 뽑는다

27일 압해읍 갯벌서 선발대회 최종 2명 선발...장려금 400만원

오는 27일 신안에서 '갯벌낙지 맨손어업'의 장인을 가린다.

신안군은 이날 압해읍 무지개마을 갯벌에서 '2회 신안군 갯벌낙지 맨손어업 장인 선발대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 대회는 국가중요어업유산 6호로 지정된 갯벌낙지 맨손어업 기술의 전문화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9년 처음 대회를 연 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올해 두 번째로 열게 됐다.

신안군은 2019년부터 수산업 장인 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갯벌낙지 맨손어업 장인 7명과 흑산 홍어 썰기 장인 2명이 선발돼 활동하고 있다.

갯벌낙지 맨손어업은 특별한 도구 없이 맨손과 삽으로만 낙지를 잡는다. 단순히 보이지만 광활한 갯벌에서 조그마한 낙지 숨구멍을 찾는 건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이 없으면 힘든 일이다.

신안에는 3만3000명 넘는 어업인들이 맨손 갯벌낙지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대회에서는 15년 이상 경력을 지닌 어업인이 읍·면별 대표로 출전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갯벌낙지 잡기 대회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2명의



신안 갯벌에서 한 어업인이 맨손으로 낙지를 잡고 있다. <신안군 제공>

장인을 선발한다. 선발된 장인은 신안군으로부터 기술장려금 400만원을 받게 된다. 또 기술 전수 교육과 홍보 활동 등 신안군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인 활동을 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갯벌 속의 산삼이라 불리는 낙지를 잡는 갯벌낙지 맨손어업은 국가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전통기술과 지식이 뛰어난 어업"이라며 "신안군은 앞으로도 수산업 장인 선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해 전통어업 기술을 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lee@kwangju.co.kr

영광군 단오제 앞두고 굴비거리 음식점 간담회

영광군이 '법성포단오제' (6월7~10일) 개최를 앞두고 법성포굴비거리 음식점 영업주들과 간담회를 밝혔다.

지난 20일 법성포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법성포굴비거리 음식점 영업주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법성포단오제 개최를 앞두고 위생·친절·식중독 예방 교육을 받고 위생 등급제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영광군은 올해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 추진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영업주들과 법성포굴비거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 각 시·군에 특색 있는 음식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음식점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었다"며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법성포굴비거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박우량(오른쪽 6번째) 신안군수를 필두로 한 신안군 방문단이 지난 17일 열린 서울프랑스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을 찾아 교육 교류를 논의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서울프랑스학교 등과 교육교류 간담회

신안군이 지역 학생들의 국제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프랑스학교, 하비에르 국제학교와 교육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신안군과 비금초·비금중·도초교, 서울프랑스학교, 하비에르 국제학교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교육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간담회는 '2024 신안 삼막 예술 축제'가 개최된 비금초 전일염다목적센터 2층에서 진행됐다.

각 학교 교장들은 이날 신안-프랑스 공동 교육 사업을 논의했다. 앞으로 신안군의 바둑체험, 염전체험, 강강술래 체험, 프랑스어 배우기, 프랑스

문화 체험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두 번째 열린 간담회는 같은 달 17일 서울프랑스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에서 열렸다. 신안 방문단은 서울프랑스학교를 탐방하고 교육 사업을 살펴봤다. 각 학교는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업무 협약을 최종 체결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다양한 나라의 교육과 문화를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lee@

완도 고금·약산 숲 향토수종 5만 그루 심는다

산림청 경관 복원사업 선정

완도군이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4 섬 숲 경관 복원사업' 대상지로 2곳이 선정돼 향토 수종 5만 2000그루를 심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는 고금면 정용리와 약산면 해동리 등 2개소로, 산림 분야 기후위기 대응 기금 16억

원을 투입한다.

'섬 숲 경관 복원사업'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식생의 변화나 병해충 피해 등으로 훼손되는 산림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회복시키는 프로젝트다.

완도군은 향토 수종인 구실잣밤나무와 동백나무, 황칠나무, 완도호랑가시나무 등 10여 종의 난대

상록 활엽수림 5만2000여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섬 숲의 산림 다양성을 보전하고 탄소 흡수원 확보로 기후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완도군 산림휴양과장은 "완도는 전국 난대림 면적의 35%를 차지하는 명실상부 난대림의 보고"라며 "미래 세대에 풍요로운 산림을 물려줄 수 있도록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ng@